

보도해명자료 (15. 4. 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TPP·메르코수르 ‘메가 FTA’ 난항.. 新통상전략 ‘빨간불’”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(15.4.29, 뉴스핌)

1. 보도 내용

- ☐ 브라질 순방을 통해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
- ☐ ‘메가 FTA 난항’이라는 제목하에 정부가 내세운 메가 FTA 가입이라는 新통상전략이 빠져거리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중남미 순방시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은 논의 의제가 아니었으며, 따라서 FTA 난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임
 - 오히려 한-메르코수르 공동협약체 개최에 합의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
 - * 공동협약체 : 한-메르코수르간 무역 · 투자 증진을 위한 협의체
- ☐ 메르코수르는 관세동맹으로서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기존 EU 및 EFTA 등과 같은 양자 FTA이며 메가 FTA가 아님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(044-203-5740)